

〈주생전〉과 『무정』 인물 비교 연구

- 인물의 성격과 행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

최어진*

- I. 서론
- II. 인물 형상 비교
- III. 『무정』의 계보와 〈주생전〉의 위치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주생전〉과 『무정』의 인물을 사회적 성격과 내면성, 행위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두 작품의 문학사적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생과 형식은 소외되어 있다는 점, 소외 현실에 대해 불감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해볼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점, 편의적으로 세계를 해석하며 즉흥적·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점 등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인간 특질은 그들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형식이 두 여성 사이에서 선택의 정당성과 합리성의 문제에 골몰하는 반면, 주생은 선택한 바를 드러내 공표하거나 실행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고민으로 인해 여성인물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점에서는 역시 유사한 면이 있다.

한편 배도와 영채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지녔다는 점, 그 경험이 그를 기려라는 신분으로 전락시킨다는 점, 자신을 곧 저버리거나 선택하지 않을 남성인물을 앞에 두고 자기과외적 선택을 내린다는 점 등에서 공통적이다. 이들의 자기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과피적 선택은 남성인물의 내면과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동일한데, 이는 곧 이들이 작품이 다루는 비극적 사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배도와 영채의 행위는 작품 내에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선화와 선형은 배도와 영채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고 지적 수준 또한 높다는 점, 이로써 삼각구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 각각 배도와 영채를 향해 노골적인 질투를 드러내 보인다는 점 등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선화가 주생을 향한 강력한 욕망에 추동되어 행동하는 것과 달리 선형은 형식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이는 두 작품의 결말에 영향을 미친다.

두 작품 속 유사한 남녀 인물의 형상은 작가가 위치하고 있었던 과도기, 격변기의 현실 속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함께 문학사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현실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이 상이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두 작품의 작가 의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곧바로 각 작품의 전/근대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앞으로 두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 주생전, 무정, 불감성, 고민, 선택, 과도기, 근대성

1. 서론

<주생전>은 인상적인 작품이다. 한 상대에게 투신(投身)하는 헌신적인 전대(前代)소설 속 인물들과 달리, ‘주생’은 옛 인연이 있는 기생 배도와 새로 알게 된 양반가의 딸 선화 사이에서 방황한다. “절대 선하지도 절대 악하지도 아니한, 사랑과 출세, 이성과 욕망의 어름에서 방황하는”²⁾ 주생 같은 인간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평가는 주생 형상이 지닌 의미와

2) 임형택, 「전기소설의 연애주제와 <위경전전>」, 『동양학』 제2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35면.

여기에 쏟아졌던 관심의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³⁾

흥미로운 점은 이 전대미문의 인물 유형이 우리 문학사에 다시 등장한다는 데 있다. 바로 『무정』의 남성 주인공 ‘형식’이다. 형식은 “새로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신여성 선형에 대한 호감과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옛 여인 영채에 대한 연민의 정”⁴⁾ 사이에서 고민한다. 일찍이 김동인은 “형식의 가슴에서는 두 개의 여성이 난무를 한다.”라면서 그를 “흔들리기 쉽고 쫓대가 없는 주인공”으로 평가했는데,⁵⁾ 이 말에서 주생을 떠올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마찬가지로 <주생전>에서 사회적 조건이 다른 기생과 상층 여성이 욕망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그 사이에서 배회하는 남성을 통해 그의 욕망이 지닌 “성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공히 드러내고자 했다고 보는 견해는,⁶⁾ 『무정』에 거의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요컨대 <주생전>과 『무정』은 두 여성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남성 형상을 통해 “남녀 간의 애정이 신분적 기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⁷⁾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본고에서 <주생전>을 다시 읽기 위해 『무정』에 주목해보려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간 <주생전>은 주생을 중심으로 독해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 속에서 남성 주인공의 선택과 그 결과에만 관심이 쏠리고, 여성인물들은 구성적 장치나 사랑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온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⁸⁾ 그러나 서술자가 주생의 처지와 세계관에 서술시각을 맞추고 있다고 해서,⁹⁾ 작품을 독해해내는 과정에서조차 다른 인물들의 상황과 내면을 외면하는 것은 과연

3) 김기동 역시 “男子的 背信으로 인한 한 女性的 죽음”, “賤妓에 대한 사랑보다는 良家女에 대한 사랑을 택하는 남자의 利己의인 思惟” 등을 이 작품에서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김기동, 『주생전』, 『이조시대소설의 연구』, 성문각, 1974, 310면).

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200면.

5)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50면.

6) 박일용, 『<주생전>의 페리디로서 <위생전>의 문학사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72면.

7) 서지영, 『규범과 욕망의 틈새: 조선시대 문학 속의 섹슈얼리티』, 한국고소설학회 편, 『한국고소설과 섹슈얼리티』, 보고사, 2009, 23면.

8) <주생전>의 경우에는 특히 배도가 그렇다. 박일용은 배도가 “주인공 주생과 선화가 만나게 되는 계기 역할” 또는 “주생의 여성편력의 한 부분”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았고(박일용, 『<주생전>의 사실적 경향성과 소설사적 위상』,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2000, 135면), 박희병 역시 배도와와의 에피소드가 두드러지고 또 의미심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주생의 여성 편력을 그리면서 주생과 선화의 사랑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39면, 각주 7번).

9) 박일용, 위의 논문, 2000, 129면.

온당한가. 무엇보다 이 작품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랑’(혹은 ‘이별’)은 주생 혼자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주생뿐만 아니라 배도와 선화도 사랑에 실패했으며, 그 일단이 <주생전>에 담겨있다는 뜻이다.¹⁰⁾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여성인물에게도 관심을 둘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주생전>과 『무정』의 인물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두 작품은 인물 관계와 서사 구성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 남녀의 사회적 성격과 내면성, 행위의 양식 또한 매우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의 같고 다른 점에 대한 설명적 접근을 넘어서기 위해 바로 후자의 경우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 인물들이 보이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생전>을 다시 읽어내는 한편, 두 작품과 관련한 문학사적 탐구 또한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

II. 인물 형상 비교

선형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생전>과 『무정』은 인물 관계 구성과 배경 설정, 서사의 틀 면 등에서 매우 닮아 있다.¹¹⁾ 그러나 문제는 두 작품의 결정적인 차이가 <주생전>의 주인공 주생은 “고전소설 주인공답게” 배도를 무시하지만, 형식은 표면적으로나마 선형과 영채 사이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10) 이와 관련하여 김현양은 <주생전>이 ‘주생 - 배도의 사랑이야기’와 ‘주생 - 선화의 사랑이야기’를 동등하게 다루는 작품이라고 보았으며(김현양, 『<주생전>의 사랑, 그 상대적 인식의 서사』, 『열상고전연구』 제28집, 열상고전연구회, 2008), 김은희는 이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비극성’의 핵심에 두 여성과의 애절한 사랑이 있다고 보았다(김은희, 『<주생전> 연구』, 『덕성여대논문집』 제28집, 덕성여자대학교, 1997).

11) 최성윤은 두 작품이 인물구도(삼각구도)와 서사의 틀을 공유하는 한편 남성인물이 가정교사라는 점, 여성인물 중 한 명이 기생이 되었다는 점 등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윤의 논의는 거의 유일하게 두 작품을 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이 논의는 『무정』에 이르러 비로소 ‘고민’하는 남성인물이 등장했다고 보고 이로부터 “고민하는 남성 인물과 고난 받는 여성 인물의 이야기가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거나 변주되었는가”(421면)를 살피기 위한 논의라는 점에서 본고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최성윤, 『‘수난’과 ‘모색’의 서사, 그리고 ‘선택’의 문제: 전경화된 ‘고민’과 후경화된 ‘희생』, 『현대소설연구』 제7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한다는 데 있는가 하는 점이다.¹²⁾ 결론부터 말하면 주생이 배도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고전소설 주인공”이라는 틀 안에서 찾고자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비교 방식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실상과도 맞지 않다.

<주생전>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인물구도와 서사의 틀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작품이 전후대(前後代) 소설과 맺는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다. 그러나 <주생전>의 진정한 의미는 작품 속 인물구도나 결말뿐 아니라, 왜 남성인물이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지, 결국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어떻게 작품 속 등장인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등장인물의 대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물구도나 서사의 틀 이면에 존재하는 인물의 사회적 성격과 내면성 등을 중심으로 두 작품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작품 속 세 남녀의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해볼 것이다. 특히 그간 <주생전>의 인물 해석과 관련하여 상반된 논의들이 상당했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한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내면적 성격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석될 때와 관계 속에서 해석될 때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 주생과 형식

<주생전>의 주생은 반복되는 과거의 실패로 장사를 시작한 인물이다. 18세 때 태학생이 되어 주위의 추앙을 받기도 하였지만, 거둬드는 실패로 인해 더 이상 공부에는 뜻을 두지 않게 되었다. 이후 주생은 배를 사서 떠도는 한편 잡화를 판매하며 생계를 꾸린다. 연구자들은 주생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는데, 주생이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는가에 대해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그를 소외양반층, 소외지식인, 방향을 잃은 지식인 등으로 보는 견해는 그의 삶이 타의적 결과에 가깝다고 보는 입장인 반면, 자유로운 인간 또는 일탈자나 오입쟁이 등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그의

12) 위의 논문, 424면. 최성윤은 “<주생전>과 다르거나 그로부터 진전된 요소가 『무정』의 근대 소설적 면모를 형성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같은 논문, 433면).

삶의 방식이 곧 그의 성격이라고 보았다.¹³⁾ <주생전>의 시작을 보자.

주생(周生)의 이름은 회(檜)이고, 자(字)는 직경(直卿)이며, 호(號)는 매천(梅川)이다. 대대로 전당에 살았으나. 그의 아버지가 촉주 별가라는 벼슬을 하게 되면서 촉주(蜀州)로 이사를 가 그곳에서 살았다.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능히 시를 지을 수 있었으며, 18세 때 대학생이 되어 동료들의 추앙을 받았다. 주생 자신도 적지 않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태학을 다니는 몇 년 동안 연달아 과거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에 주생은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미미한 티끌이 연약한 풀에 깃들어 있는 것과 같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공명에 구속되고 속세에 매몰되어 나의 인생을 보내리오?”¹⁴⁾ (35면)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생은 거듭되는 낙방으로 인해 삶을 허비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공부에 뜻을 두지 않게 되었다. ‘거듭되는 낙방’이 곧 그의 능력에 대한 표현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인생을 허비하기 싫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합리화로 이해되기도 한다.¹⁵⁾ 그는 주변 세계를 편의적으로 해석한다. 확실히 그는 목표지향적이라기보다 현실지향적 인간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회의 일원에게 같은 실패가 거듭될 때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생의 ‘거듭되는 낙방’이 그가 처한

13) ‘주생’의 성격에 대한 견해로는 1) 소외양반층 내지는 소외된 지식인(박일용, 조광국), 2) 일탈자로서 유희자적인 삶을 사는 낙약한 인물(여세주) 3) 타락을 갈망하는 뒤튼린 사인(양승민), 4) 시제가 뛰어난 오입쟁이(이종묵) 등이 있다(박일용, 앞의 논문; 조광국, 『<주생전>과 16세기 말 소외양반의 의미 변화와 기녀의 자의식』, 『고소설연구』 제8집, 한국고소설학회, 1991; 여세주, 『<주생전>의 서사구조와 성모랄』, 『영남어문학』 제25집, 영남대학교, 1994; 양승민,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종묵, 『<주생전>의 미학과 그 의미』, 『관악어문연구』 제16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14) 周生名檜, 字直卿, 號梅川. 世居錢塘, 父爲蜀州別駕, 仍家于蜀. 生少時, 聰穎能詩, 年十八, 爲太學生, 爲儕輩所推仰. 生亦自負不淺, 在太學數年, 連舉不第. 乃喟然歎曰: “人生世間, 如微塵棲弱草耳. 胡乃爲名羈所係, 汨汨塵土中, 以送吾生乎?” 이하 <주생전>의 원문과 번역문은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2015(수정판)에서 가져왔다. 면수는 번역문의 면수를 따른다.

15) 이와 같은 주생의 삶에 대해 김일렬은 운명의 벽을 회피하면서 자기 위안을 찾은 결과라고 보았고(김일렬, 『<주생전>의 작품세계와 비극적 성격』,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88면), 여세주는 제도권에 진입할 수 없자 좌절하여 도피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 이해했다(여세주, 앞의 논문, 10면). 조광국은 환로가 좌절된 것에 대한 보상심리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조광국, 앞의 논문, 143면).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적어도 주생이 반복적으로 과거에 응시하는 동안 그러한 문제를 의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주위의 기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기대하는 사회적 지위로부터 멀어져있다는 점에서 ‘소외’되어 있다.¹⁶⁾

그가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자신의 소외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해 볼 생각조차 못한다는 데 있다. 과거를 포기한 주생은 즉각 수중에 있는 돈의 절반을 써서 배 한 척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잡화를 거래하며 산다. 때때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시는데, 전당(錢塘)에 흘러 들어오게 된 것도 잔뜩 취한 어느 날이었다. 그를 계획적이라거나 철저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이에 대한 탐구 의지도 없는 상태, 이러한 무감각과 ‘불감성(不感性, insensible)’은 이후 서사에서 일관되게 주생의 행동을 지배한다.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불감성은 개인의 삶에는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 주생이 자신의 성격 덕에 가망 없는 과거합격에 투신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탐구해보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는 행운에 가깝다. 그가 적극적인 삶의 개척자로 이해되기도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인한다.¹⁷⁾ 그러나 이후의 서사를 통해 이러한 그의 성격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드러나게 된다.

주생은 우연히 도착한 전당에서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기생 배도를 만난다. 그와 배도의 결합은 과거의 추억에 기댄 것이라고 하더라도 즉흥적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주생은 배도와 살기 위해 장사를 접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도가 기생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 하자 이행가능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즉시 붓을 휘갈겨(生卽揮筆之)”(42면) 맹세의 글을 써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생의 면모는 낭만적이기는 하나 철저해 보이지는 않는다.

16) 박일용은 주생이 과거에 낙방한 후 상업에 종사하게 된 것에 주목하여 그를 몰락양반으로 이해하였으나(박일용, 앞의 논문, 2000, 130~132면), 박희병은 작품의 배경이 조선보다 신분제가 느슨한 중국임을 감안했을 때 주생이 상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유난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보았다. 주생이 불우한 것은 맞지만 ‘몰락’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박희병, 앞의 논문, 24~26면). 본고에서는 상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 주생이 본래 원하던 삶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는 입장이므로 박희병의 의견에 더 가깝다.

17) 박일용, 앞의 논문, 2000, 131~132면.

“이것은 남자가 마땅히 맡아서 해야 할 일이요. 설령 그대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소?”¹⁸⁾ (41면)

이후 서사에서 주생이 이 ‘약속’에 대해 전혀 유념하지 않는 점을 상기하면,¹⁹⁾ 위와 같은 호언장담은 무색하게 느껴진다. 그가 이기적인 까닭은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옮겨서가 아니라, 배도와 약속을 할 때 자신의 객관적 조건들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주생의 불감성과 즉흥성이 배도에게는 비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배도에 대한 애착이 그를 선화에게로 인도하면서 발생한다. 승상 부인이 배도를 불러 배도가 집에서 나가자 주생은 마음이 불안하여 배도를 뒤따라가고, 이때 선화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주생은 선화의 동생 국영의 선생이 되어 선화의 집에 들어가고, 그를 만나기 위해 선화가 머무는 곳의 담을 넘는다.

“처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본래 선화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이제 향기로운 봄도 이미 끝나버렸는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겠는가? 차라리 당돌하게 담을 넘어 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일이 이루어지면 귀하게 될 것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을 받아 죽으면 그만이다.”²⁰⁾ (50면)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겠는가?”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과거를 포기하며 “어떻게 공명에 구속되고 속세에 매몰되어 나의 인생을 보내리오?”라고 탄식하던 과거의 주생이 떠오른다. 그는 포기도 빠르고 결정도 빠른 인물이다. 이 점에 유념하면서 위의 발언을 다시 보면, 열정과 헌신, 결의 보다는 무모함이 느껴진다. 실제로 그는 배도에게 들켜 선화와의 관계가 폭로될 지경에 이르자 벌과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배도의 말을 순순히 따른다. 주생이 그 의미를 충분히

18) “此男子分內事耳。汝縱不言，我豈無情者?”

19) 지연숙은 배도와 주생 모두가 이 약속에 무관심하다고 보았다(지연숙, 『<주생전>의 배도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332면).

20) “始吾來此，本圖仙花，今芳春已盡，奇遇未成，俟河之清，人壽幾何? 不如昏夜唐突，事成爲貴，不成則烹，可也。”

따져보지 않은 채 즉흥적·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말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객관적 처지와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 불감성을 지닌 인물임을 상기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형식의 경우는 어떠한가? 『무정』의 주인공 이형식은 “황금시대에 황금의 힘도 없고 지식 시대에 남이 우러러볼 만한 지식의 힘도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²¹⁾ 형식은 부모를 잃고 박진사의 문하에 들어가 그와 인연을 맺는다. 영채는 바로 그때 만난 박진사의 딸이다.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형제자매의 사랑도 모르고”(67회, 257면) 외롭게 자랐다는 서술을 통해 형식의 사회적 성격을 파악해볼 수 있다. 그는 고아이고, 가난하다. 그의 친구인 신우선처럼 쾌활하지도 못하고 쉽게 부끄러움을 타며, 배움은 있지만 대단한 정도는 아니다. 경성학교에 재직 중이지만 학교에 의견을 제출해 채용된 적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아직 자기의 높은 세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선각자의 설움”(71회, 270면)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안심한다. 그런 형식에게 김장로 집 여식 선형의 영어 과외 기회가 생기고, 형식은 신우선의 부추김 속에서 그를 ‘배우자’로 상상하고 즐거워한다. 형식은 자주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주위 세계를 편의적으로 해석한다. 형식은 주생을 닮았다.

주생과 마찬가지로 형식의 이러한 면모는 여성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영채가 현재 처한 상황을 알고 난 뒤로, 자신이 영채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여긴다. 영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천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며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의지와 능력 또한 없다. 영채가 절망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저 괴로워할 뿐이다.²²⁾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영채는 형식을 만나자마자 그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결론지은 상태였다.²³⁾ 선형 또한 형식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를 순애의 배우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

21) 이광수, 김철 책임 편집, 『무정』, 문학과지성사, 2005, 2회, 14면. 이하 『무정』의 인용문은 이 책에 근거하여 ‘회차수, 면수’로 표기한다.

22)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짐승 같은 눈이 육육에 눈이 벌게서 불쌍하고 어여쁜 영채에게 억지로 달려드는 모양과 영채가 울고 떼밀고 죽기로써 저항하다가 마침내 오아 하고 절망하는 듯이 쓰러지는 모양이 형식의 눈앞에 역력히 보인다.” (25회, 102~103면)

23) “또 설혹 돌아볼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은 돈이 있고야 구원할 몸이어늘 가만히 형식의 살림살이를 보며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다.” (35회, 137면)

다.²⁴⁾ 영채 - 형식 - 선형의 삼각관계는 형식의 머릿속에서만 유효하다는 지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²⁵⁾ 그의 습관적인 편의주의적 세계 해석은 곧 그가 객관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가 주생과 닮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불감성’에 기인한다.²⁶⁾ 그가 영채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 단정 짓고 무작정 그의 시체를 찾으러 떠나려하고, 그러다 선형과의 약혼을 제안하는 김장로의 말에 곧장 가던 길을 멈추고 약혼을 하는 등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도 주생과 상통하는 면모가 보인다.

주생과 형식은 소외되어 있다는 점, 소외 현실에 대해 무감 또는 불감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 그러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해볼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점, 편의적으로 세계를 해석하며 즉흥적·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점 등에서 같은 유형의 인물이다.²⁷⁾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의 의미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주생과 형식은 고민하고 망설이는 동일한 행동을 보이지만, 그 원인과 내용은 상이하기 때문이다.

㉔ 그러나 영채가 만일 지금껏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으면 어쩌나. 내 마음과 내 사상을 알아줄 만한 공부가 없으면 어쩌나. (중략) 아아, 만일 영채가 이렇게 무식하면 어쩌는가. 그렇게 무식한 영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아아, 영채가 무식하면 어쩌나. (12회, 51~52면)

24) “선형의 보기에 형식은 처음부터 자기의 짝이 되기에는 너무 자격이 부족하였다. (중략) 그러다가 처음 형식을 보며 미상불 처녀가 처음 남자를 접하는 기쁨이 없음을 아니었으나 결코 자기의 짝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형식은 자기보다 여러 층 떨어지는 만 계급에 속한 사람이거나 하였다. (중략) 그래서 선형은 ‘형식과 순애가 배필이 되었으면’ 한 일이 있었다.” (96회, 360~362면)

25) 차미령, 『<무정>에 나타난 ‘사랑’과 ‘주체’의 문제』, 『한국학보』 제29권1호, 일지사, 2003, 164면.

26) 정병설은 형식이 스스로의 이성과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사회적 관습을 따른 것에 대해 반성하는 점에 주목하고, 제목 ‘무정’이 ‘감정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정병설, 『『무정』의 근대성과 정육』, 『한국문화』 제54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242~244면). 본고에서 말한 ‘불감성’과 ‘감정의 없음’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병설이 형식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거나 표현해내지 못한다고 본 점은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7)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적 성격이 ‘가정교사’라는 신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지배체제로 편입할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으나 단 한 사람의 인간에게는 선생으로 위치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바로 이것이 주생과 형식의 사회적 좌표이다.

㉑ 영채의 몸은 과연 김현수에게 몸을 더럽힘이 되었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중략) 영채의 몸은 더러워졌구나, 영채의 몸은 김현수에게 더러워졌구나 하였다. (44회, 170~171면)

형식은 과거 인연이 있는 영채에 대한 부채의식과 새로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선형과의 삶 사이에서 고민한다. 영채는 무식할 수도 있고(인용문 ㉑), 능욕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인용문 ㉒). 이와 같은 고민은 과연 영채가 애초에 성경험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진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에 괴로워하면서도 형식은 마음속에서조차도 영채를 저버리지 못한다. 이 고민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문면상으로 형식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그렇다면 주생은 어떠한가.

주생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핑계를 대고 다시 배도의 집으로 돌아갔다. (중략) 주생은 오로지 선화만을 생각하느라고 날로 여위고 수척해 갔으며, 20여 일 동안이나 병을 핑계 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²⁸⁾ (58면)

선행연구에서는 형식이 고민을 하는 반면, 주생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²⁹⁾ 주생은 고전소설의 주인공, 즉 전근대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그는 빠르게 포기하고 빠르게 결정한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선화와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배도를 따라와 집에 머무는 것이나, “선화를 생각하느라 날로 여위고 수척해”지면서도 몇 달 동안 배도의 곁을 떠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망설임’이나 ‘고민’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 시간 동안 주생이 어떻게 하면 선화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골몰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매우 타당하게 생각되기까지 한다.³⁰⁾ 주생은 일찍이 선화에게 반해 그의 꿈을 꾸면서도 배도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고, 또 선화와 사랑을 나누면서도 배도를 의식했다.

이렇듯 두 인물이 두 여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망설인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28) 生不得已托以他故，復歸挑家。(중략) 生篤念仙花，日成憔悴，托疾不起者再旬。

29) 최성운, 앞의 논문.

30) 지연숙은 주생이 선화와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배도를 포기하지 못했다고 보았다(지연숙, 앞의 논문, 342면).

그들의 행동 양식은 매우 유사한 듯 여겨진다. 그러나 고민의 원인과 내용은 상이한데, 이는 곧 그들의 행동이 지니는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형식의 고민은 주로 영채의 지식 수준과 성경험 유무, 강간을 당했는가의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무식한 데다가 능욕을 당한 여성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형식이 사랑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형식의 고민은 영채와 선행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한편 주생의 고민은 배도와 선회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무관해 보인다. 그는 선회를 보자마자 선회에게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주생은 현실적으로 선회를 만날 방법을 찾지 못해 배도 곁에 머물렀을 뿐이다. 선회와 인연을 맺기 전에도, 선회와 헤어진 후에도 그랬다.

요컨대 형식이 두 여성 사이에서 선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따져보는데 골몰하는 반면,³¹⁾ 주생은 선택한 바를 드러내 ‘공표’하거나 ‘실행’하는 문제에 더욱 관심이 있다. 주생은 그러한 마음 상태로 배도의 곁에 머무는 행동이 지니는 의미나 그것이 배도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일단은 배도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배도는 죽음에 이른다. 형식 역시 두 여성을 저울질하는 행위 자체에 몰두하느라고 선택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가 고민하는 사이 영채는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르고, 선행 또한 모멸감에 시달려 괴로워했는데도 말이다. 자신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그에 대해 탐구해볼 능력도 없는 두 남성에 의해 여성의 삶은 폐쇄해지게 이른다. 이 두 작품은 남성인물이 지닌 불감성이 여성인물에게 어떻게 불행한 결과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남성인물의 불감성, 이에 따른 고민과 망설임이 여성인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남성인물의 고민과 여성인물의 불행의 문제를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작품 속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1) 이를테면 차미령은 이에 대해 “좀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이로써 『무정』의 삼각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차미령, 앞의 논문, 163~164면)

2. 배도와 영채

그간의 연구에서 여성인물에 주목한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³²⁾ 그러나 일부의 연구에서는 여성인물이 지닌 전/근대적 면모에 지나치게 주목하면서 그 의미를 부각시키려한 나머지 그들의 행위가 지닌 실질적인 의미를 밝혀내는 데는 소홀했다고 판단된다.³³⁾ 인물의 행위가 근대적인 것으로 해석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인물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과 이별에 참여했음을 감안했을 때, 누가, 왜 남성인물에게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는가 하는 문제에만 천착하는 접근 방식도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생전>과 『무정』에서는 남성인물뿐 아니라 여성인물에게도 욕망이나 고뇌가 생겨나고, 그들 역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작품 속에서 남성인물과 먼저 인연을 맺었던 두 여인, 배도와 영채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자 자기파괴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 행위는 남성인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배도는 전당에 돌아온 주생을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리하여 배필을 구해주겠다는 핑계로 주생을 집으로 데리고 온다. 주생 역시 “이미 배도의 외모를 사랑하게 된 터(生既悅其色)”(39면)라, 배도의 곁에서 서성거리며 서로 마음을 전한다.

“제 조상은 본래는 호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인 모(某)는 천주시박사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 서인(庶人)으로 폐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집안은 가난하게 되어 능히 떨치고 일어날 수가 없었으며, 저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남의 손에 길러져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깨끗하게 순결을 지키고자 했으나, 이름이 이미 기적에 올라 부득이 사람들을 상대로 즐기며 놀아야만 했습니다. (후략)”³⁴⁾ (41면)

32) 김은희, 앞의 논문; 지연숙, 앞의 논문 등.

33) 『무정』의 경우에는 작품 전체를 ‘박영채傳’으로 읽어내는 등 여성 주인공에게 주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도리어 이 과정에서 젠더적 특성이나 차별적 요소는 간과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황정현, 『여성주의적 시각과 『무정』 연구사』, 『춘원연구학보』 제11집, 춘원연구학회, 2017 참조.

34) “妾先世, 乃豪族也. 祖某提學泉州市舶司, 因有罪廢爲庶人, 自此貧困, 不能振起. 妾早失父母, 見養于人, 以至於今. 雖欲守淨自潔, 名已載於妓籍, 不得已而強與人宴樂. (후략)”

주생의 마음을 알아 쟈 배도는 느닷없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위와 같이 말한다. 집안이 죄를 짓고 몰락한 데다가 부모를 잃어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배도는 불우한 환경 때문에 뜻하지 않게 최하층으로 편입된 인물이다. 배도가 겪어온 사회적 지위의 변화는 『무정』 속 영채의 경우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벌써 십유여 년 전이로다. 평안남도 안주읍에서 남으로 십여 리 되는 동네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십여 년을 학자로 지내어 인근 읍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일가가 수십여 호 되고 양반이요 재산가로 고래로 안주 일읍에 유세력자라니 신미년 난에 역적의 혐의로 일문이 혹독한 참살을 당하고 어찌어찌하여 이 박진사의 집만 살아남았다. (5회, 25~26면)

영채는 박진사의 딸이고 형식은 박진사에게 의탁하여 공부하던 학생이었다. 박진사 집은 이미 역적의 혐의를 받아 한 차례 몰락한 상태였다. 그러다 마을 부잣집에 강도가 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박진사의 집에서 형식과 함께 머물던 흥 모(某)의 소행이었다. 박진사는 공범의 혐의를 받아 아들 형제와 함께 감옥에 가게 되고 형식과 영채는 헤어지게 된다. 이 사건 이후 영채는 아버지와 두 오라비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다. 영채는 가문이 몰락하면서 하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배도와 유사하다. 기생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같다. 배도와 영채는 이처럼 이들은 현재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현저하게 불행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변화는 그들이 겪은 사회적 상흔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³⁵⁾

여성인물이 겪은 신빙적 하락은 남성인물로 하여금 동질감이나 연민을 느끼게 한다. 그들은 여성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남성인물들이

35) 최성윤은 배도와 달리 영채가 자발적으로 기생이 되었다고 보았다(최성윤, 앞의 논문, 433면). 그러나 이들의 선택은 연이은 불행의 결과였기에 원천적으로 자유의지나 능동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우선적으로는 영채의 불행을 곧 영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20세기 초반의 여성의 삶의 실체에 대한 고려 없이 근대적인 잣대를 들이면 결과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광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채의 집안이 몰락하지 않았다면 영채는 기생이 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들에게 주목해야 할 공통점은 그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이 비운의 여성들에게서 두려움이나 거부감 또한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무정』에서 형식은 영채의 지적 수준과 성격형의 문제에 집착하는데, 이는 연이은 불행으로 배움을 얻지 못하고 기생이 되어 버린 영채의 삶 자체에 대한 거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영채의 삶의 이력이 남성인물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준 셈이 된다. 또한 영채는 능욕을 당한 뒤 자살을 결심하는데, 이 행위는 자기파괴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실현되기도 전에 형식에게 엄청난 동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주목이 필요하다.³⁶⁾ 영채를 형식 때문에 불행해져버린 여성으로만 취급해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실상과도 맞지 않다고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도리어 형식의 삶이 영채로 인해 달라진 점이 더 많다. 영채를 구시대적인 인물로 만들려는 작가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보는 선행연구는,³⁷⁾ 이와 같은 점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영채 혹은 영채의 삶은 『무정』이 다루는 사연의 결과가 아니다. 영채의 삶과 그의 선택은 남성인물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전개에도 일정하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편 주생이 배도와 선화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배도에게 선화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정』의 경우와 달리, <주생전>에서 배도의 삶의 이력이 주생에게 고려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배도의 삶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한 편에 가깝다. 그렇다면 기왕의 해석에서처럼 배도는 주생의 여성 편력 대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려울까.

주생은 선화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다. 배도에게 선화와의 관계가 발각된

36) 차미령 역시 영채가 “어떤 손실을 유발하더라도 자기 충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그 결과 영채의 편지/유서가 “희생이 아니라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라고 보았다(차미령, 앞의 논문, 179면). 차미령의 관점은 논자가 밝히고 있듯 서영채의 관점에 기원한다. 서영채는 영채의 전근대적 행위 이면에 존재하는 감정의 ‘진정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서영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9~40면). 이 의견들은 경청할 만하지만, 영채의 자살은 그녀가 지닌 전/근대성의 결과라기보다 그가 입은 사회적 상흔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채의 자살(결심)은 폭력의 주체가 동시에 대상이 되는, ‘채귀적 폭력(reflexive violence)’의 범주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Christopher Scanlon and John Adlam, “Reflexive Violence”, *Psychoanalysis Culture & Society* 18(3), 2013;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참조.

37) 서영채, 위의 논문, 39면.

이후 다시 배도에게 돌아가지만, 마음을 추스르지는 못했다. 선화의 동생 국영이 병이 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를 표하려 갔을 때에도 주생은 선화에 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그런데도 그가 당장 선화에게 달려가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남의 집 담을 넘어 서로 따르며 구멍을 뚫고 서로 엿보는 짓을 어떻게 군자(君子)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안방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모두 아뢰겠습니다.” (중략)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낭군이 이미 약속을 저버렸는데 제가 어찌 맹세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³⁸⁾ (57~58면)

앞서 주생이 자신을 속이고 선화의 집으로 들어간 후 선화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배도는 위와 같이 말한다. 이에 대해 기왕의 연구에서는 배도가 스스로 정식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질투를 드러냈다고 보기도 하고,³⁹⁾ 주생을 자신의 삶을 구원해줄 유일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⁴⁰⁾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배도의 발화 내용보다 발화 방식에 있다. 배도는 주생에게 스스로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사실보다 양반가 규수의 담을 몰래 넘어 사통(私通)한 죄에 대해 먼저 발언한다. 그리고 이 발언은 오랜 고민의 결과였다.

배도는 주생의 품에서 자신이 지어준 시가 먹칠이 되어 있는 데다가 <안아미(眼兒眉)>라는 새로운 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화와 주생의 관계를 깨닫는다. 배도는 “매우” 화가 났지만 다시 그 시를 소매 속에 넣고 주머니를 봉한다. 그리고 “앉아서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가 주생에게 “천천히” 묻는다.⁴¹⁾

“낭군이 이곳에서 더부살이를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어찌하여 아직까지 저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38) “踰牆相從，鑽穴相窺，豈君子所可爲哉？我欲入白于夫人。” (중략) “便可與妾同歸。不然則即既背約，妾何守盟?”

39) 지연숙, 앞의 논문, 334면.

40) 황혜진, 「신경증에 걸린 고전소설의 인물들」, 『고소설연구』 제4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6, 56면.

41) “**배도는 매우 화가 나서** 그 시를 소매 속에 말아 넣고 그 주머니는 예전처럼 봉해두었다. 그리고 **앉아서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배도는 천천히 물었다(乃大怒取其詞，納諸袖中。又封結其囊如故，坐而待朝。生酒醒後，徐問曰)**.” (57면)

주생이 말했다.

“국영이 아직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오.”

배도가 말했다.

“아내의 동생을 가르치니 성의를 다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주생은 부끄러움으로 얼굴과 목이 붉게 달아오른 채 말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이오?”

배도는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⁴²⁾ (57면)

그러나 주생은 대체 무슨 말이나며 짐짓 잡아챈다. 이때에도 배도는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했다. 배도가 즉각적으로 질투심을 드러낸다거나, 상대를 독점·지배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배도는 주생에게 선화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기까지 적어도 두어 번 이상 숨을 고른다. 화가 나지만 참고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자신을 왜 버렸느냐 욕박지르거나 원망하는 대신 주생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그에게 전달한다. 그러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로소’ 돌아보게 된 주생은 선화에게 달려가지도 못하고 배도를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만다. 그에게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빠르게 포기하고 빠르게 결정하던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 이미 선화를 선택했지만 선화에게 가지 못한다.⁴³⁾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 불감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있던 주생이 드디어 이에 대해 자각을 이뤄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배도의 고민과 선택이 주생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그러나 배도는 결국 주생 곁에서 죽는다. 배도의 선택은 자기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지만,⁴⁴⁾ 이 때문에 주생은 배도가 죽은 후에도 선화를 선불리

42) “郎君久寓於此，而不歸何也？”生曰：“國英未卒業故也。”桃曰：“教妻之弟，不可不盡心也。”生赧然而頸發赤曰：“是何言也？”**桃良久不言。**

43) 김현양 역시 주생이 선화를 선택했지만 그 의지가 관철될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배도를 일방적 패배자로 보는 입장에 회의를 표했다(김현양, 앞의 논문, 337면).

44) 지연숙은 배도가 “이성적”이며 “노련”하다고 하면서, 이후 실연의 아픔으로 죽을 만큼 위태해졌을 리가 없다고 보았다(지연숙, 앞의 논문, 338면). 한편 박일용은 배도가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죽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박일용, 『<주생전>의 환상성과 남·녀 주인공의 욕망』, 『고전문학과 교육』 제25집, 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418면). 본고에서는 배도가 자기파괴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주생을 곁에 머물게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본다. 배도의 결정은 실존적 결단 차원에서 행해진 자기파괴에 가까울 것이다. 실존적 결단 차원의 자기파괴(자해)에 대해서는 정항균, 『아버님의 여인들 또는 폭력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 출판

찾아가지 못한다. 배도의 선택은 주생의 내면과 행동에 이렇듯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배도가 작품 속에서 기생이라는 신분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거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자명하다. 그가 기왕의 연구에서 극적인 삼각관계 설정을 위한 구성적 장치라거나 주생의 여성 편력의 대상쯤으로 치부되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춘향’이나 ‘운영’과 같이 해방을 외치는 주체적인 여성을 보아왔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러나 배도가 비극적 사연의 결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배도는 신분적·사회적 제약 안에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남성 주인공의 행동을 제어하고 또 그의 성격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거듭된 고뇌와 선택의 결과였다. 무엇보다 배도가 자기파괴적인 방식이지만 실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의미화 시킨다는 점에서, 그를 주생의 욕망의 대상이나 구성적 장치로만 보는 시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주생이 배도 곁에 머무르면서 망설이는 동안 독자는 배도의 입장에서 주생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배도에 의해 남성인물이 시선(seeing)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배도의 행위는 작품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⁴⁵⁾

3. 선화와 선형

또 다른 여성인물인 선화와 선형의 경우도 주목해 볼만하다. 선화는 승상의 딸이고 선형은 김장로의 딸이다. 이들은 남성인물보다도 현격히 높은

부, 2017, 113~115면 참조.

45) 이에 본고에서는 <주생전>과 『무정』 속 여성인물들에게서 ‘행위자성(agency)’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agency’는 “사회구조의 결정적인 구속력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행위자의 힘”을 말한다(고영복 편,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320면). 한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agency’는, 조현준에 따르면 “선형적인 주체를 상정하지 않는 행위의 작동원인이나 매개성”, “행위를 통해서만 구성되는 주체성” 등의 뜻이므로 “행위주체성”으로 번역될 수 있다(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트리블』, 문학동네, 2008, ‘버틀러의 주요 개념들’ 참조). 전해은은 이같은 버틀러의 행위성 개념이 “자율적이고 일관된 근대적 주체개념에 기대지 않고서도” 사회적 소수자들의 저항적 실천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전해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9권2호, 2011, 184면).

사회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나이가 1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부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구름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빛이 맺혀 있고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 빛이 어리어 있었다. 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 같았으며, 어여쁨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미소는 봄꽃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했다. 배도가 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배도는 그 소녀에 비하면 봉황에 섞인 갈까마귀나 울빼미요, 옥구슬에 섞인 모래나 자갈일 뿐이었다.**⁴⁶⁾ (<주생전> 45면)

선형은 참 아름다운 처녀라. 얼굴도 아름답거니와 마음조차 아름다운 처녀라. **저 선형과 이 영채를 비교하면 실로 선녀와 매음녀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번 영채를 보았다. (『무정』 10회, 46면)

문면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듯이, 선화와 선형이 뽑어내는 계급적인 기운이나 분위기(aura)는 배도나 영채는 영원히 갖지 못할 수준의 것이었다.⁴⁷⁾ 여기에 압도된 주생과 형식이 배도와 영채를 불품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과정이 이렇듯 적나라하게 묘사될 때, 독자는 남성인물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선화와 선형의 아름다움을 ‘계급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배도와 영채 역시 매우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무정』에서 형식은 영채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일언일동과 웃고름 맨 모양까지도 못 건디게”(17회, 70면) 어여쁘다고 생각한다. <주생전>에서도 주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배도의 외모를 사랑했다.⁴⁸⁾ 그러나 선화와 선형이 상징하는 ‘계급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이길 정도는 아니었다.

이 두 여인은 지적 수준 또한 배도와 영채보다 높은 것으로 그려진다. 배도는 주생이 짐짓 선화에 대해 물었을 때 자신이 “감히 바라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非賤妾所敢望也)”(47면)고까지 말한다. 한편 형식이 생각하기에 영채는 가족이산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연히 배움에서 멀어졌을 테지만, 선형은

46) 有少女，年可十四五，坐于夫人之側，雲鬢結緣，翠臉凝紅。明眸斜睨，若流波之映秋日，巧笑生情，若春花之含曉露。桃坐于其間，不啻若鴉鵝之於鳳凰，砂磔之於珠璣也。

47) 서지영은 선화의 아름다움을 “계급적 아우라”로 명명했다(서지영, 앞의 논문, 23면).

48) “주생은 이미 배도의 외모를 사랑하게 된 터에 또 그녀가 지은 시를 보자, 마음이 미혹되어 온갖 상념이 다 일었다(生既悅其色，又見其詩，情迷意惑，萬念俱灰).”(39면)

이미 그에게 영어 알파벳을 배우는 여인이므로 그보다는 훨씬 뛰어난 여성인 것이다. 종합해보면, 선화와 선형은 주생과의 관계에서 배도와 영채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런데 이처럼 유사한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선화와 선형은 남성인물을 대하는 태도와 내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선화는 담장을 넘어와 자신에게 구애를 하는 주생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그와 열렬한 사랑을 나눈다. 그는 단 한 번도 주생과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선화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형은 어떠한가.

실로 아직 선형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앓는가를 생각하여본 적이 없다.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98회, 369~370면)

선형은 자신의 욕망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선형이 형식과 약혼한 것은, 형식이 짐작한대로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⁴⁹⁾ 그리고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선형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탐구해볼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 점에서 선형은 주생과 형식을 닮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선형의 이와 같은 모습은 형식이 생각하는 영채와 선형의 대비가 실상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다. 『무정』에서 형식은 자신과 영채를 자주 대비시키고 이로써 동질감을 느끼는 반면, 선형과는 극복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낀다.⁵⁰⁾ 형식은 바로 이 이질감에 근거해서 고민에 빠진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선형의 불감성이 적나라하게 묘사될 때, 독자는 형식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형식은 사회적 성격 면에서 영채와 가깝지만, 내면적 성격 면에서는 선형을 닮았다. 그러니까 선형의 이와 같은

49) “만일 선형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 하면 이는 불쌍한 선형을 희생함이라.” (98회, 368면)

50) “만일 선형으로 하여금 이 영채의 신세를 보게 하면 단정코 자기와는 딴 나라 사람으로 알렸다. 즉 자기는 결단코 영채와 같이 되지 못할 사람이요 영채는 결단코 자기와 같이 되지 못할 사람으로 알렸다.” (7회, 33면)

내면은 곧 형식이 그토록 원하는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복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선화와 선형이 사랑의 삼각구도에서 완벽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배도와 영채를 향해 ‘질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데 있다.

어느 날이었다. 주생은 배도를 오래도록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도가 의심할까 염려가 되었다. 그래서 배도의 집으로 가서 자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날 밤 선화는 주생의 방으로 가서 몰래 주생의 소지품이 담긴 주머니를 열어보다가 배도가 주생에게 준 시 몇 편을 발견하였다. 선화는 질투심을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있는 붓과 먹으로 그 시를 까마귀처럼 새까맣게 지워버렸다. 그리고 <안아미>라는 제목의 시 한 수를 지어 푸른 명주에 써서 주머니 속에 던져 넣고 나왔다.⁵¹⁾ (55면)

선화는 주생이 배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생과 사랑을 나눴다. 그런데 어느날 주생의 주머니 속에서 배도가 써준 연서(戀書)가 발견되자 질투를 느껴 먹으로 그 시를 지워버리기까지 한다. 선화는 주생을 만날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다. 즉각적으로 질투심을 드러내며 독점욕을 내비치는 인물이라는 평가는 배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화에게 어울릴 법하다. 선화가 느낀 질투와 모멸감은 선형에게서도 확인된다.

형식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영채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여본다. 쌍궁쌍궁 웃는 영채가 보인다. 그 하얗고 동그레한 얼굴이 요물스럽게 보인다. (중략)

‘아이구 꼴 보기 싫어!’ 하며 선형은 두 손길을 펴서 이마에 댄다. ‘왜 이 사람 아직 아니 오누’하며 자리를 한번 옮아앉는다.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 하며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한번 일어났다가 앉는다. 형식이 돌아오거든 실컷 분풀이를 하고 싶다, ‘너희들끼리 더럽게 잘 놀아라’ 하고 침을 탁 뱉고 달아나고도 싶다. ‘아이구 내 팔자야!’ 하고 함부로 몸을 흔든다. 한 번 더 ‘어쩌면 좋아!’ 하고

51) 一日, 生念久不見俳桃, 恐桃見怪, 乃往宿不歸. 仙花夜至生室, 潛發生粧囊, 得桃寄生詩數幅, 不勝嫉妬, 取案上筆墨, 塗抹如烏, 自製眼兒眉一闕, 書于翠綉, 投之囊中而去.

폭 쓰러져 운다. (116회, 436~437면)

선형은 형식과 약혼한 후 미국 유학을 위해 탄 기차에서 영채를 만난다. 자신이 저울질하던 두 여성을 한 공간 안에서 맞닥뜨리게 된 형식은 그제야 선형에게 영채와의 인연을 털어놓는다. 선형은 겉으로는 태연한 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법 강렬한 질투를 느낀다.

그러나 앞서 선화와 달리 선형의 내면에 형식을 향한 욕망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선화의 질투가 사랑의 독점욕에서 비롯된 내면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선형의 질투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선형의 질투는 자못 피상적이다. 다만 이 점은 작품의 결말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주생은 두 사람 중 어느 누구와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형식은 표면적으로 두 사람 모두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무정』에서 선형의 질투가 선화만큼 강렬했다면, 형식, 선형, 영채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결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선화와 선형은 사회적 성격과 행위 면에서는 유사함을 지니고 있지만 내면적 성격의 면에서는 다르다고 하겠다.

III. 『무정』의 계보와 <주생전>의 위치

지금까지 <주생전>과 『무정』의 인물 형상을 사회적 성격과 내면성, 그리고 이에 따른 행동과 그 이면의 동기 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 비교에 근거하여 두 작품의 문학사적 관련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무정』은 그간 고전소설과의 관련성 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기점에 대한 논의가 으레 그렇듯, 최초의 근대소설로 지목된 『무정』과 전대 문학과와의 연관성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바로 고전문학분야에서 제출된 『무정』의 소설적 계보에 대한 논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⁵²⁾ 고전문

52) 성현경, 「『무정』과 그 이전 소설: 춘원의 이조소설, 특히 이조소설에 대한 인식·태도와 그 작품상의 반영」, 『어문학』 제32집, 한국어문학회, 1975; 조동일, 『소설사의 전개와 신소설』, 『중

학 연구자들은 『무정』이 전대 소설로부터 계승하고 있는 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만이 비로소 새로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⁵³⁾ 이 논의들에 의하면 『무정』은 <숙향전>, <유충렬전>, <조웅전>, <춘향전>, <구운몽>, <옥루몽> 등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서사 구성이나 인물 형상, 특정 장면과 일부 화소 등이 이상의 작품들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⁵⁴⁾ 실제 이광수는 <소대성전>, <장풍운전> 등의 영웅소설류와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 등의 가정소설류를 읽었다고 한 바 있다.⁵⁵⁾ <춘향전>과 <옥루몽> 등은 『무정』 안에서 직접 언급되기도 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무정』이 도덕과 사상을 담아낸 것이 전통적 ‘문이재도(文以載道)’ 문학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또한 지적된 바 있다.⁵⁶⁾ 같은 논의에서 ‘영채 이야기’가 조선시대 가장 많이 읽혔던 <숙향전>의 수난 서사와 매우 닮아 있는 데다가, 작품 속에 ‘앵혈’ 등의 한글장편소설 고유의 화소가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여성수난소설 또는 규방소설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무정』 속에는 전대소설이 이룩한 거의 모든 요소들이 담겨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구운몽>, <옥루몽>, <춘향전> 등은 모두 <주생전> 과 인물 및 구성 면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작품들이기도 하다. <주생전>이 <춘향전>의 예고편 격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⁵⁷⁾ 이러한 기왕의 견해를 종합해 보았

보 국문학연구의 방향과 과제, 새문사, 1985; 김종철, 『<무정>의 계보』, 『선청어문』 제16·17 합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 김현양, 『임화의 ‘신문학사’ 인식과 전통: ‘구소설’과 ‘신소설’의 연속성』, 『민족문학사연구』 제38집, 민족문학사학회, 2008; 정병설, 앞의 논문 등.

53) 조동일은 “『무정』이 최초의 본격적인 근대 장편소설이라는 평가는 구소설과의 관련을 살피지 못한 데 기인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2009(제4판), 450면).

54) <채봉감별곡>이나 <부용상사곡> 등과 비교한 경우도 있지만, 정병설이 지적한 대로 이상의 작품은 고전소설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정병설, 앞의 논문, 237면 각주 3번). <채봉감별곡>이나 <부용상사곡> 등과 비교한 논의는 대개 『무정』 속 ‘기녀담’의 수용양상을 다루고 있다. 남상권, 『『무정』의 <기녀담> 수용과 후일담 소설의 성격』,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 문한별,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과 『무정』에 수용된 기녀담 서사 유형 비교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1집, 우리어문연구회, 2003; 문한별, 『이광수 『무정』과 활자본 고소설 <채봉감별곡>의 공시적 비교 연구: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집, 한국근대문학회, 2004 등 참조.

55) <다난한 반생의 도전>(『이광수전집』 8, 우신사, 1979, 445면), <부활의 서광>(『이광수전집』 10, 우신사, 1979, 25면) 참조.

56) 정병설, 앞의 논문, 240면.

57) 임형택, 앞의 논문, 34면.

을 때, <주생전>과 『무정』의 소설사적 관련성에 대해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생전>과 『무정』(1917)을 관련시키려는 시도가 눈에 띄지 않는 까닭은 두 작품의 시간적 거리가 상당하고, 또 작품의 장르적 성격, 편폭 등 또한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생전>과 『무정』의 인물들은 애정삼각구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고, 이 때문에 어떤 국면에서는 매우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또 상당한 경우에 그 행위의 원인이나 내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정』의 소설적 계보와 <주생전>의 위치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남성 주인공의 형상과 각 작품의 작가가 놓여있었던 사회역사적 현실을 연관시켜 이해해 온 기왕의 연구사가 참조가 된다.

권필(權緝, 1569~1612)은 임진왜란 이후 신분제가 크게 흔들리던 격동기를 살았다.⁵⁸⁾ 그는 낙방 후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궁류시(宮柳詩)를 지었다가 결국 죽게 된다.⁵⁹⁾ 작가 권필의 개인사적 정황들을 근거로 <주생전>을 해석하려고 했던 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고 있다. 권필의 생애에 비추어보면, <주생전>이 형상화하고 있는 비극은 곧 그의 비극적인 삶의 비유적 표현인 것이다. 한편 『무정』의 작가 이광수(李光秀, 1892~1950)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나라에 외세에 침탈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과 세계관이 대혼란을 맞이하던 시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김동인이 『무정』 속 형식이 곧 이광수라고 보았던 이후로,⁶⁰⁾ “흔들리기 쉽고 쫓대가 없는” 형식은 곧 이광수로 이해되어 왔다.⁶¹⁾ 이와 같은 견해를 따른다면 본고에서 지적했던 주생의 ‘현실지향적’ 성격은 권필의 현실지향적

58) <주생전>의 작가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권필이라고 보는 것에 합의한 듯하다.

59) 소재영, 『백호와 석주의 소설사적 위치』, 『국어국문학』 제72·73합집, 국어국문학회, 1976, 333면.

60) “여기 우리가 매우 흥미를 느끼는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리기 쉽고 쫓대가 없는 주인공 이형식을, 우리는 즉시로 이 소설의 작자인 이준원으로 볼 수가 있는 점이다(김동인, 앞의 책, 50면).”

61) 방민호, 『『무정』 독해의 국면들과 무정·유정의 사상』, 『춘연연구학보』 제10집, 춘연연구학회, 2017, 45면. 『무정』을 작자 이광수의 자전적 성격이 반영된 작품으로 읽어낸 대표적 논의로 김윤식, 『『무정』의 문학사적 성격- 표충구조와 심충구조』, 『김윤식 선집』 2, 숲, 1996 참조.

성격, 형식의 ‘불감성’은 곧 이광수의 불감성이 될 것이다. 요컨대 이 두 작품 속 남성인물의 형상은 작가가 위치하고 있었던 과도기, 이행기, 격변기의 현실 속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한 결과라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매우 단순하고 또 지나치게 현실반영적인 관점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또한 작품 이해의 폭을 좁히고 상상력을 차단하는 측면도 있다.⁶²⁾ 다만 이와 같은 접근이 의미 있는 것은 이른바 ‘전환기’ 혹은 ‘격변기’가 언제든지 다시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또 하나의 격변기라고 할 수 있는 ‘해방공간’의 도래나 ‘한국전쟁’의 발발이 우리 문학사에 다시 한 번 주생이나 형식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내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봄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서 <주생전>으로부터 『무정』을 조망해 보았을 때, 남성인물이 자신이 처한 사회 상황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생과 형식은 모두 주변 세계에 대해 탐구할 마음도 능력도 없는데, 이것은 곧 그가 처한 현실이 극복되지 못하고 일정 시간 지속될 것을 예견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주생전> 속 남성 주인공을 향한 작가의 “공범의식”을 지적한 것이나,⁶³⁾ 『무정』의 작가 이광수가 “반성적인 자기각성”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본 것은⁶⁴⁾ 이와 같은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가의식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만 것이 도리어 이 두 작품의 성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면, <주생전> 속 주생의 모습은 조선 후기를 살았던 남성 지식인 형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한편 배도나 영채의 형상 또한 작품이 탄생한 과도기적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배도가 ‘기녀’ 신분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것은 조선후기 신분제의 변동과 무관하게 생각하기 어렵다.⁶⁵⁾ 배도로부터 춘향 형상의 기원을 찾아

62) 방민호는 형식을 ‘과도기’의 인물로 보는 독법 역시 김동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시각이 작품을 일면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았다(방민호, 앞의 논문, 46~47면).

63) 임형택, 앞의 논문, 35면. 특히 임형택은 “작가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지 못한 나머지 어정쩡한 문인적 취향으로 배도의 비련을 동정하면서 주생의 변심을 긍정하는 모순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주생을 긍정하면서도 실제 결과는 부정적 인간으로 묘사된 이중적 모순이 일어났다(같은 논문, 36면).”고 말하기도 했다.

64) 권영민, 앞의 책, 204면.

65) 조광국은 배도가 지닌 신분상승의식이나 실리구추의식이 16세기 말 기녀들에게서 상당수 확인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배도의 형상이 당대 기녀들의 자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조광국, 앞의 논문, 152~154면).

내려는 시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영채의 비극적인 가족사와 신분의 변화 역시 개화기에 초래되었던 사회적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⁶⁶⁾ 작품 속 인물형상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사회 현실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배도나 영채가 자기파괴적인 선택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는 점이나 선화가 욕망이 추동하는 대로 적극적인 삶을 사는 점에 주목해보면, 여성인물을 통해 사회 현실에 대한 극복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남성인물들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대비를 이룬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곧바로 각 작품의 전/근대성으로 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주생전>의 흥미로운 점을 왜소하게 만들고 『무정』의 성취를 도리어 축소시켜 이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⁶⁷⁾ 이를테면 형식의 고민과 주생의 고민이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던 까닭은 주생이 살았던 조선사회의 억압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주생이 선화와 사통한 사실을 발각당하는 데 큰 불안을 느껴 망설인다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의 고민이 절대적으로 근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가 과도하게 영채의 성경험에 집착해 결정을 유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시대적이지 않은가. 한편 배도와 영채가 자신에게 닥친 가족사적 비극 때문에 하필 ‘기생’이 되고 마는 점에 주목해보면 두 작품 속 여성의식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선형’과 같은 피상적이고 무감각한 여성 형상이 문학사적으로 심각한 퇴보라는 점을 상기하면, 두 작품의 여성의식과 관련한 모든 면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주생전>과 『무정』을 함께 읽는 것은 두 작품을 여러 국면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앞으로 두 작품을 함께 읽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66) 권영민, 앞의 책, 202면.

67) 정병설에 의하면 그간 『무정』의 성취로 이해되어온 것 중에서 계몽적 사상이나 사실적 묘사, 평범한 인물의 등장 등은 그리 대수로운 수준이 아니며, 전대 문학(소설)보다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이와 같은 점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무정』의 성취를 바로 내면 분석과 형상화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병설, 앞의 논문, 240~241면). 이와 같은 견해는 『무정』을 전대소설과 면밀하게 대조한 후 도출된 것이므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 논문은 <주생전>과 『무정』 속 인물 형상의 비교를 통해 <주생전>을 새롭게 이해하는 한편 두 작품의 문학사적 관련성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했다. 특히 그간 <주생전> 속 여성인물들에 대해 지나치게 기능적인 관점이 적용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여성인물에게도 동등한 관심을 두고자 했다. 작품 속 인물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그 이면의 원인이나 내용은 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어떤 국면에서는 성격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행동양식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결과적인 의미는 달리 읽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주생전>과 『무정』은 작가가 살았던 현실과의 관련성 면에서 문학사적으로 함께 논의해 볼 지점이 있지만, 그 같고 다른 점을 작품이나 작품 속 인물의 전/근대성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본고에서 살펴본바 두 작품이 환기하는 여러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통해 두 작품을 다시 읽어내는 과정은 작품의 진진된 이해를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결론지었다.

본고의 논의는 새로 창안해낸 부분보다 그간 축적되어 온 <주생전>과 『무정』 각각의 연구사에 힘입은 바가 더 크다. 여성인물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배도와 영채의 자기파괴적 선택에 주목하고 그것이 지니는 영향력을 강조하려다보니, 작품이 다루는 비극적 사태의 책임을 여성인물에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비교해봄직한 설정과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성하면서 작품 속 서사 전체를 세세히 다루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를테면 <주생전>에서 배도가 죽고 주생이 전당을 떠난 이후의 이야기는 전혀 다루지 못했다. 무엇보다 두 작품을 대비하는 일에 주력하다보니 문학사적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소략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2015(수정판).
이광수, 김철 책임 편집, 『무정』, 문학과지성사, 2005.
_____, 『다난한 반생의 도전』, 『이광수전집』 8, 우신사, 1979.
_____, 『부활의 서광』, 『이광수전집』 10, 우신사, 1979.

2. 단행본

- 고영복 편,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김기동, 『이조시대소설의 연구』, 성문각, 1974.
김윤식, 『김윤식 선집』 2, 숲, 1996.
김일렬,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2000.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우쾌제 외,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조동일, 『증보 국문학연구의 방향과 과제』, 새문사, 1985.
_____,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2009(제4판).
정향균, 『아비농의 여인들 또는 폭력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7.
한국고소설학회 편, 『한국 고소설과 섹슈얼리티』, 보고사, 2009.
_____, 『한국 고소설 강의』, 돌베개, 2019.
Butler, Judith, 조현준 옮김,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Salih, Sara, 김정경 옮김,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알피, 2009.

3. 논문

- 김경애, 『무정의 전통성과 근대성 연구 - 권선징악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5집,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31~72면.
김은희, 『<주생전> 연구』, 『덕성여대논문집』 제28집, 덕성여자대학교, 1997, 179~202면.
김종철, 『<무정>의 계보』, 『선청어문』 제16·17합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 789~808면.
김현양, 『<주생전>의 사랑, 그 상대적 인식의 서사』, 『열상고전연구』 제28집, 열상고

- 전연구회, 2008, 325~354면.
- _____, 『임화의 ‘신문학사’ 인식과 전통: ‘구소설’과 ‘신소설’의 연속성』, 『민족문학사 연구』 제38집, 민족문학사학회, 2008, 47~70면.
- 남상권, 『『무정』의 <기녀담> 수용과 후일담 소설의 성격』, 『어문학』 제74집, 한국어 문학회, 2001, 219~247면.
- 문한별,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과 『무정』에 수용된 기녀담 서사 유형 비교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1집, 우리어문연구회, 2003, 307~329면.
- _____, 『이광수 『무정』과 활자본 고소설 <채봉감별곡>의 공시적 비교 연구: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집, 한국근대문학회, 2004, 93~114면.
- 박일용, 『<주생전>의 환상성과 남·녀 주인공의 욕망』, 『고전문학과 교육』 제25집, 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399~426면.
- _____, 『<주생전> 공간 구조와 환상성』, 『고소설연구』 제35집, 한국고소설학회, 2013, 139~166면.
- _____, 『<주생전>의 패러디로서 <위생전>의 문학사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61~203면.
- 방민호, 『<문학이란 하오>와 『무정』, 그 논리구조와 한국 문학의 근대 이행』, 『춘원 연구학보』 제5집, 춘원연구학회, 2012, 205~253면.
- _____, 『『무정』 독해의 국면들과 무정·유정의 사상』, 『춘원연구학보』 제10집, 춘원 연구학회, 2017, 43~69면.
- 백운용, 『<주생전>의 비극적 성격 연구』, 『어문학』 제72집, 한국어문학회, 2001, 145~166면.
- 서영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2.
- 성현경, 『『무정』과 그 이전 소설: 춘원의 이조소설, 특히 이조소설에 대한 인식·태도와 그 작품상의 반영』, 『어문학』 제32집, 한국어문학회, 1975, 35~55면.
- 소재영, 『백호와 석주의 소설사적 위치』, 『국어국문학』 제72·73합집, 국어국문학회, 1976, 332~336면.
- 송병우, 『조선시대 개인의 자살, 사회적 타살』, 『동양한문학연구』 제40집, 동양한문학 회, 2015, 1~28면.
- 양승민,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여세주, 『<주생전>의 서사구조와 성모랄』, 『영남어문학』 제25집, 영남대학교, 1994, 161~192면.

- 이종묵, 「<주생전>의 미학과 그 의미」, 『관악어문연구』 제16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167~189면.
- 임형택, 「전기소설의 연애주제와 <위경천전>」, 『동양학』 제2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25~47면.
- 전혜은, 「근대적 주제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화페미니즘』 제19권2호, 2011, 153~191면.
- 정병설, 「『무정』의 근대성과 정육」, 『한국문화』 제54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235~253면.
- 조광국, 「<주생전>과 16세기 말 소외양반의 의미 변화와 기녀의 자의식」, 『고소설연구』 제8집, 한국고소설학회, 1991, 137~163면.
- 지연숙, 「<주생전>의 배도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317~350면.
- 차미령, 「<무정>에 나타난 ‘사랑’과 ‘주체’의 문제」, 『한국학보』 제29권1호, 일지사, 2003, 159~182면.
- 최성윤, 「‘수난’과 ‘모색’의 서사, 그리고 ‘선택’의 문제: 전경화된 ‘고민’과 후경화된 ‘희생」, 『현대소설연구』 제7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419~447면.
-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황정현, 「여성주의적 시각과 『무정』 연구사」, 『춘원연구학보』 제11집, 춘원연구학회, 2017, 61~89면.
- 황혜진, 「신경증에 걸린 고전소설의 인물들」, 『고소설연구』 제4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6, 39~78면.
- Scanlon, Christopher and John Adlam, “*Reflexive Violence*”, *Psychoanalysis Culture & Society* 18(3), 2013, pp.1~33.

A Study on Characters of *Jusaengjeon* and *Mujeong*

Choe, O-chin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characters of *Jusaengjeon* and *Mujeong* and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history.

Jusaeng and Hyongsik are similar in that they are socially alienated, have no will and ability to actively explore their alienated situation, interpret the world as they want, and act impulsively. These characteristics homogeneously led them to feel anxiety. However, their causes of the anxiety are somewhat different. Jusaeng is concerned with how to publicize and implement his decision, while Hyongsik is worried if his choice is reasonable and worthy. Despite these differences, their worries and concerns commonly drive the lives of women in ruins.

Baedo and Yeongchae both with tragic family history, became courtesans and eventually made self-destructive choices (reflexive violence) in front of the men who seemed to abandon themselves. Their self-destructive choice similarly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ind and behavior of the male characters. In this sense, their story is not the 'consequence' of the tragedy. Their actions carry deep meaning throughout the works. From this fact, it can be said that they have 'agency'.

Seonwha and Seonhyoung are with higher social positions and intellectual levels than Baedo and Yeongchae. In spite of their advantageous status, the former group was jealous of the latter women. It is noticeable that while Seonhwa was driven by a strong desire for Jusaeng, Seonhyoung had little interest in Hyongsik. This difference shapes the endings of these two novels.

This comparison leads us to ask why the characters in these two works with a huge gap in time are so similar. The similar characters in these two works were inevitable products of the transitional, cataclysmic realities in which the artists lived. In this sense, the characters can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history. Yet, it is noticeable that the attitudes toward reality the male and female characters show are quite different.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hould not be simply

considered to be originated from their premodernity or modernity. Therefore, more comparative studies on these two works are needed in the future.

keywords: *Jusaengjeon*, *Mujeong*, insensible, cataclysmic realities, modernity

접수일자: 2020. 3. 31.

심사기간: 2020. 4. 1.~2020. 5. 10.

게재결정: 2020. 5. 10.